

비상경제장관회의 **경제부총리** 모두발언(11.1)

- 지금부터 비상경제장관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.
- 최근 이태원에서 발생한 불의의 사고로 돌아가신 분들의 명복을 빌며, 유가족들께도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.
 - 정부는 사고 수습에 총력을 다할 것이며, 행정적·재정적 지원이 신속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.

[최근 수출입 동향 및 신성장 수출동력 확보 추진계획]

- 오늘 10월 수출입 동향이 발표되었습니다. 9월까지 23개월 연속 증가해 온 수출이 2년만에 감소 전환되었습니다.

* 수출(전년동기비, %): ('20)△5.5 ('21)25.7 ('22.1/4)18.4 (2/4)13.0 (3/4)6.0 (10)△5.7

- 글로벌 경기 하강, 중국 봉쇄 등 대외여건 악화로 전세계 교역이 둔화되면서 우리 수출도 영향을 받는 모습이며, 특히, 반도체 단가 급락 등 글로벌 IT경기 위축이 IT 비중이 높은 우리 수출에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어 당분간 증가세 반전이 쉽지 않을 전망입니다.

* '22.10월 수출 감소폭(전년동월비, △32억불)의 77%가 IT수출 감소에 기인

↳ IT수출 △25억불: 반도체(△19)·무선통신(△3)·디스플레이(△1)·가전(△2) <관세청 기준>

- 향후 글로벌 경기여건이 개선될 경우 우리 수출이 빠르게 증가세로 반등되도록 하기 위해서는,
 - 수출품목과 지역을 다변화하고 수출경쟁력을 강화하는 등 근본적인 수출구조 개선을 위한 노력을 보다 강화해 나갈 필요가 있습니다.

□ 이러한 인식 하에, 정부는 지난 10.27일 대통령 주재 비상경제 민생회의에서 신성장 수출동력 확보전략을 논의하는 등 수출구조 체질개선에 선제적으로 착수하였으며,

○ 오늘 그 후속조치로 5대 분야* 세부 추진과제에 대한 구체적인 실행계획을 마련하였습니다.

* ①주력산업, ②해외건설, ③중소·벤처, ④관광·콘텐츠, ⑤디지털·바이오·우주

○ 이들 5대 분야는 우리가 세계시장을 선도하고 있거나, 앞으로 성장 가능성이 높은 유망 신산업 등으로서, 우리 수출 재도약의 기반이 될 핵심 분야들입니다.

< 5대 부문별 주요 세부과제(안) >

- ① (주력산업) 이차전지 산업 혁신전략 수립(11.1), 주력산업 국가산업단지 조성(12월)
- ② (해외건설) 원팀 코리아 수주지원단 첫 출장(11월), 해외건설업 특별연장근로 기한 연장(11월)
- ③ (중소·벤처) 역동적 벤처투자 생태계 조성방안(11월), 수출 중소기업 지원방안(12월)
- ④ (관광·콘텐츠) 전자여행허가제 개선(11월), 호텔 등 외국인 고용쿼터 규제 완화(11월~)
- ⑤ (디지털·바이오·우주) (가칭)인공지능 초일류 전략(12월), 디지털바이오 혁신전략(11월)

□ 정부는 이러한 분야에서의 조속한 성과 창출을 위해, 이달 중 5대 분야별로 민관합동 협의체를 출범하여 실효성 있는 핵심과제 발굴에 즉시 착수하고,

○ 범정부적 역량을 결집하여 대부분의 과제를 연내 신속히 추진하겠습니다.

○ 또한, 기업현장의 애로사항을 해소하고 투자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범부처 수출투자지원반도 조속히 운영하겠습니다.

□ 앞으로 비상경제장관회의를 통해 매월 과제 이행상황 등을 꼼꼼히 점검하고,

○ 관계부처 장·차관과 민간 전문가들이 함께 분야별 산업현장을 직접 찾아가 생생한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추진과제에 적극 반영할 계획입니다.

□ 이상으로 모두발언을 마치고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.